

현대모비스 '맵스' 시스템 구축 300만 부품 공급 실시간 관리

현대모비스가 전 세계에서 운행 중인 6500만여 대의 현대·기아차 AS부품 공급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통합정보시스템인 '맵스'(MAPS: Most Advanced Parts System)를 신규 구축하고, 올해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현대모비스가 공급하고 있는 AS부품은 관리품목만 무려 300만 종에 이른다. 글로벌 고객에게 차량 운행 기간동안 AS부품을 적기에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원관리시스템(ERP)이 필수적이다.

현대모비스는 이 시스템 구축으로 전 세계 부품생산과 물류 이동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불필요한 운송비용을 절감하고, 해외 현지에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려 고객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맵스에 적용한 머신러닝은 50여 가지의 변수를 분석해 급작스러운 글로벌 물류환경의 변화, 재고상황 등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미리 판단해 효율성을 대폭 향상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모비스 맵스 TFT담당 이상영 상무는 "향상된 AS 부품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차 산업 등 IT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행과 전기차 등 미래차 모빌리티 서비스에 특화된 물류 플랫폼 구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르노삼성 XM3

르노삼성, 최대 200만원 더할 할인 프로모션

르노삼성자동차(대표이사 도미니시노라)가 2021년 새해를 맞아 1월 한 달간 신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더할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1월에 르노삼성자동차를 재구매하면 New QM6, XM3, The New SM6, 캡처 모델에 한해 최대 200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New QM6 GDe 구매시 최대 100만 원 상당의 구입비(읍선, 용품, 보증연장)를 추가로 제공하고, LPe 구매시 최대 50만 원 상당의 구입비 지원(읍선, 용품, 보증연장)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할부 기간에 따라 최대 36개월간 2.5%, 48개월간 3%, 60개월간 3.3%, 72개월간 3.5% 등의 저금리 할부가 가능하다. XM3 Tce 260(20MY 한) 구매시 최대 50만 원 상당의 구입비 지원(읍선, 용품, 보증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XM3 1.6 GTe(20MY 한) 구매시에는 최대 20만 원 상당의 구입비 지원(읍선, 용품, 보증연장) 혜택을 제공한다.

원성열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현대차는 2025년까지 전기차 56만대를 판매해 전기차 선도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아이오닉 브랜드는 이 목표를 이루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이오닉 브랜드 제품 라인업 렌더링 이미지(왼쪽부터 아이오닉 6, 아이오닉 7, 아이오닉 5).

사진제공 | 현대차

현대차 '아이오닉 5'...5분 충전하면 100km 썩썩

2021년 신축년 자동차 업계의 최대 화두는 전기차다. 이전까지의 전기차 시장이 과도기였다면, 차세대 플랫폼을 적용해 주행 가능 거리와 성능을 대폭 강화한 전기차들이 속속 출시될 올해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장의 환경 규제와 탄소 배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점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빠르게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전기차들 비롯한 친환경차 시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자동차 기업의 필수 생존 전략이다.

●현대차그룹, 'E-GMP' 탑재한 차세대 전기차 출시

전기차 시장 규모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올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약 43% 늘어난 687만8000여 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폭발적인 전기차 시장 성장의 원년이 바로 올해인 것이다. SNE리서치는 올해 이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연평균 21%씩 성장해 2030년에는 4000만대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탑재한 차세대 전기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현대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적용된 순수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 (IONIQ)'의 첫 번째 작품인 준중형 CUV '아이오닉 5(IONIQ 5)'를 올해 1분기 내에 선보일 예정이다.

아이오닉 5에는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가 적용되어 획기적인 성능 개선이 이뤄졌다. E-GMP는 전기차만을 위한 최적화 구조로 설계돼 초고속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18분 이내 80% 충전이 가능하며, 5분만 충전해도 100km를 주행할 수 있다.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500km 이상으로 기존 전기차의 한계를 벗어났다.

0~100km 가속 성능은 5.2초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엔진룸이 필요 없고 배터리가 차체 하단부에 위치하는 전기차의 특성 덕분에 실내 공간도 혁신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출시 예정인 기아차의 'CV(프로젝트명)'와 제네시스 브랜드의 'JW(프로젝트명)'에도 전기차 전용 플

2021년 출시 예정인 주요 전기차		
브랜드	차명	특징
현대	아이오닉 5	준중형 CUV, 상반기 출시 예정
기아	CV(프로젝트명)	기아차 첫 전용 전기차, CUV
제네시스	JW(프로젝트명)	형태 미공개, 제네시스 첫 전기차
메르세데스-벤츠	EQA, EQS	전기 준중형 SUV, 준대형 세단
아우디	e-트론 스포트백 55	전기 SUV, 고속 충전 가능 갖춰
BMW	ix, iX3	BMW의 차세대 전기 SUV
테슬라	모델 Y	7인승 전기 SUV
쌍용차	E100(프로젝트명)	코란도 기반 순수 전기차, 출시 불투명

전기차 플랫폼 E-GMP 첫 탑재 1분기 출시 18분 이내 80% 충전...역대 가장 빠른 속도 기아차 CV·제네시스 JW 2분기 출시 준비

BMW 등 독일 3사도 차세대 전기차 가속도 테슬라를 '모델 Y'로 전기차 대중화에 나서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플랫폼을 활용한 기존의 전기차와 달리 전기차만을 위한 최적화 구조로 설계돼 1회 충전으로 국내 기준 500km 이상 주행할 수 있으며, 800V 충전 시스템을 갖춰 초고속 급속충전기 이용시 18분 이내 80% 충전이 가능하다.

사진제공 | 현대차

랫폼인 E-GMP가 적용된다. 세팅에 따라 아이오닉 5와 유사하거나 이를 능가하는 제원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 CV와 제네시스 JW는 2분기 출시가 유력시되고 있다.

●글로벌 주요 브랜드, 차세대 전기차 출시 가속화

내연기관의 강자인 독일 3사도 차세대 전기를 속속 선보일 예정이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 SUV 'EQC'에 이어 올해는 대형 전기 세단 'EQS'와 준중형 전기 SUV 'EQA'를 출시할 예정이다. EQC는 아우디 'e-트론'에 밀리며 고전했지만 새롭게 선보이는 모델들이 어떤 경쟁력을 갖출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우디는 올해 쿠페형 전기차인 'e-트론 스포트백'을 국내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BMW는 'X3'의 전기차 버전인 'iX3'와 순수 전기 SUV 모델인 'iX'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iX는 BMW의 전기차 판매를 이끌 차세대 주력 모델이 될 전망이다.

전기차 시장의 최강자인 테슬라는 올해 '모델 3'의 뒤를 이어 전기차 대중화를 이끌 '모델 Y'를 선보인다. 공간 활용성이 뛰어난 7인승 SUV 모델이며, '모델 X'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국내 판매가 7000만~8000만 원대 예상)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

이처럼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패권은 누가 차지하게 될까. 업계에서는 "성능 발전을 이룬 전기차 시장의 승패를 가를 열쇠는 결국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와 인공지능 기술 등 차세대 혁신 기술의 적용 여부"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2조3900억 원을 투자해 자율주행 분야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갖춘 엘티브와 미국 현지에 합작법인(조인트벤처, JV)을 설립하고, 약 1조2000억 원 가치의 세계 최고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이유도 글로벌 전기차, 자율주행차, 도심항공모빌리티, 로보틱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현대차그룹은 2025년까지 전기차 56만대를 판매해 전기차 선도 브랜드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바 있다. 그 성공 여부를 가늠할 첫 번째 전기차는 올해 1분기 출시 예정인 '아이오닉 5'다. 어떤 혁신 기술과 새로운 공간을 담아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이끌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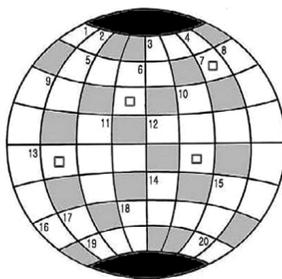
■ 스토쿠문제

	6		7		2	
7		6		3		1
		9		8		
	5	6		9		7
4		3		5		2
	9	1		6		4
			5		6	
6			2		1	
	3			4		8

■ 스토쿠정답

9	8	1	6	7	2	3	5	4
2	5	8	1	8	2	6	7	9
6	7	2	9	8	5	1	8	4
5	8	7	9	8	1	6	2	3
2	9	6	9	1	8	7	9	5
8	1	2	6	7	9	5	8	3
7	2	9	8	5	6	2	1	4
1	6	5	8	2	9	7	8	1
8	2	8	7	1	1	9	9	6
9	8	7	6	2	9	1	5	2
9	2	5	7	8	1	6	2	8
6	2	1	8	9	7	9	7	8
2	5	2	9	8	7	6	1	4
1	8	6	2	7	9	8	9	1
8	7	9	1	6	2	8	2	9
2	9	8	8	2	6	9	1	7
7	6	2	9	1	8	2	8	9
9	1	8	2	9	7	2	8	6

■ 낱말문제



■ 가로열쇠

01. 몹시 추운 겨울. 03. 단신 출가해 독신으로 불도를 닦는 중. 05. 갈로 쳐서 두 동강이를 내듯이 어떤 일을 선택 결정함. 07. 하는 일 없이 세월

을 보냄. 09. 정해 놓은 때 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름. 12. 중병으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 회복됨. 13. 자기를 완전히 잊고 흠뻑 취함. 15. 권리를 버리고 행사하지 않음. 16. 고기잡이에 쓰는 도구. 18. 고생을 하면서 공부하여 얻은 보람. 19. 하지가 지나도록 비가 오지 않을 때에 비오기를 빌던 제사. 20. 날이 날카로운 단도.

■ 세로열쇠

02. 둘 또는 그 이상의 것을 같은 것으로 봄. 03. 명주실로 광택이 나게 짠 피륙의 총칭. 04. 소송에 이김. 06. 맨발에 신도록 실이나 섬유로 짠 것. 08. 당일로 불일을 끝내고 되돌아올 수 있는 거리 안에 있는 구역. 범

위. 09. 물이 너무 많으면 큰 고기가 없다는 뜻. 'ㅇ정ㅇ대ㅇ' 10. 권력이 없는 약자나 하층인 사람. 11. 뜻을 박거나 빼는 데 쓰는 연장. 14. 녹다 남은 눈. 15. 공원을 길이 기법하려고 세우는 비. 17. 공을 사용하는 운동 경기. 18. 흥과 아우.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칸을 이어 놓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라 이름이 됩니다.

